



포천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앙기원

고급육 미트빌 유통시장 진입 승부수 던져

축산의 최적지라는 장점 살려 FTA 극복해야



양기원(48·사진)조합장은 제22대 포천JC회장, 포천양돈협회 회장, 포천축협 이사 활동을 통해 포천 축산업정책의 전문가로 조합을 이끌어 가고 있다.

양 조합장은 축산은 우리의 생명산업이라고 강조한다. 축산은 환경, 인간, 동물에 조화를 이룰 때 비로서 성장하는 휴먼산업이다. 세계각국들이 문화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의 국가적인 보호에서 벗어나 인에서만 경쟁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우리 축산업도 이제는 경쟁력 확보 및 세계화의 파고를 넘지 않고서는 생존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축산의 최적지인 포천에서 차별화된 축산물을 생산하고 어떤 주부의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축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면 다가오는 세계화의 파도를 슬기롭게 극복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현재 포천축산업협동조합 양축 현황은 한우 319농가, 유우 360농가, 양돈 187 농가, 양계 119농가, 기타 141농가 등 1천126 농가로 구성돼 있다.

총 조합원수는 1천899명으로 지역별로 보면 포천동, 군내면, 신북면, 창수면을 포함한 본점 729명, 영북면, 영중면, 관인면을 포함한 영북지점 397명, 일동면, 이동면, 화현면을 포함한 일동지점 415명, 소흘읍, 가산면을 포함한 소흘지점 232명, 내촌지점 126명으로 분포되어 있다.

포천축산업협동조합은 조합장을 비롯해 대의원 70명, 이사 7명, 감사 2명, 직원 94명이 조합을 이끌어 가고 있다.

지도관리분야는 사양관리 기술교육 및 우수조합원을 대상으로 각종 축산자재 지원과 검정사업 확대에 노력하고 있으며 축분액비유통센터를 발족하여 가족농노액비로 농경지 환원을 촉진함으로써 경종농업과 연계하는 친환경 축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방역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가축질병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신용사업의 경우 2006년도 예수금 1천446억원으로 전년 대비 9.4% 성장했으며 상호금융대출은 1천344억원으로 전년 대비 12.9% 성장했다.

경제사업중 구매사업으로 조합에서 판매하는 마흔촌 배합사료는 조합원의 적극적인 이용과 품질에 대한 평가로 사료의 품질이 개선되어 일반사료회사의 견제력을 갖추고 또한 철원군 양축과까지 조합사료를 공급함으로써 사료사업 확대에 노력했으며 농가의 부담 절감과 건전성에 노력했다.

판매사업은 군납 및 계통출하사업이 전년 대비 21% 성장했으며 또한 축산물유통사업소의 설립으로 유통, 판매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축산물 판매의 기틀을 마련하기도 했다.

마트사업은 고품질의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할인 행사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가공사업은 경제사업의 활로를 모색하는 새로운 사업인 육가공 공장을 완공하고 조합 자체 브랜드인 미트빌을 개발하여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을 가공, 판매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고른 품질의 브랜드육을 생산하는 초석을 마련했다.

포천축산업협동조합은 올해 신용사업 예수금 1천630억1천600만원, 대출금 1천513억1천900만원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구매사업 134억9천600만원, 판매사업 108억3천600만원, 마트사업 4억2천300만원, 가공사업 94억8천만원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포천축산업협동조합은 2007년 도 주요지도사업으로 사업장제해 및 가축질병에 대한 지원, 방역장비 무상수리, 우수 양축가 지원(계약수의사 운영, 가축공제 보조금 지원, 환경개선 원자재 지원, 방역약품지원), 축산물소비캠페인, 축종별 조합원 교육실시, 축산관련 전문정보지 구독지원, 컨설팅 사업, 젓소 산유능력 검정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양 조합장은 조합원을 위해 실익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전이용대회, 원료조합원 간담회, 장학금 지급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포천시는 물론이고 경기도와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을 위해 조합원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탐방 우리지역 사업소 118 권들석재

봉안당(奉安堂) · 가족묘지조성 전문



대표 추교환

“제품의 품질, 가격 면에서 절대 고객을 우롱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고객의 편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봉안(납골)당, 비석, 상석, 잔디, 묘태석, 조형석, 자연석, 묘지 토목공사 등 돌과 관련된 공사는 모두 취급하고 있는 권들석재(포천시 일동면 기산리(관동) 대표: 추교환).

올바른 장묘문화를 지향하며 격에서 시골까지 고객맞춤의 경영을 지향하며 위 지역 내에서 작지만 내실 있는 업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국토면적에 비해 묘지

유료 석 공예를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

추 대표는 “처음으로 배우기 시작한 분야는 돌에 비문을 새기는 과정이었다. 처음 배우면서 기억에 지금도 남는 것은 심한 꾸지람밖에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라고 한다. 그래서 인내심과 배우고자하는 욕망으로 3~4년 열심히 노력한 결과 주위의 인정을 받고 직업적으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며 “그러나 요즘은 기술의 발달로 비문을 새기는 우수한 기계들이 많이 개발되어 예전에 고생해서 배운 일이 아깝지만 일하는 양이 월등하게 많고 편하기 때문에 다행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권들석재에서 취급하고 있는 다양한 용도의 봉안당의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중형 봉안당은 가족형 구조의 친근함이 특징이며 형태는 고급형이며 안장수는 108기다. 설치면적은 약 30~50평으로 상석1, 비석1, 작은 석등2, 망주석2, 난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형 봉안당은 기와 가족형의 친근함이 특징이며 형태는 고급형이며 안장수는 60기다. 설치면적은 약 30~50평으로 다양한 종류가 있다.

◆문중형 봉안당 2호는 전면 기둥이 비룡조각으로 근엄한 가족형이 특징이며 형태는 고급형이며 안장수는 120기다. 설치면적은 30~50평으로 상석1, 비석1, 작은 석등2, 망주석2, 난간 등이다.

◆봉안(납골)묘는 일반형의 심플함이 특징이

시공 후 철저한 A S는 권들석재만의 자존심 고전미와 예술적 감각이 다양한 봉안(납골)당

의 점유율이 높은 추세다. 그동안 매장주의의 장묘문화에서 화장·봉안문화 이용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문중형 봉안당, 가족형 봉안당, 봉안묘 등을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장묘문화는 요즘처럼 바쁜 시대에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으며 도로나 교통, 주위 자연환경이 어울리는 공간을 잘 선택해 지손들이 한방이라도 더 찾을 수 있는 공간이면 그만이라고 한다.

충남 보령은 국내에서 유일한 ‘오석’ 생산지라고 한다. 예로부터 돌을 이용한 석 공예나 석 공작들이 많이 소재하고 있어 조상 대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종사해 왔다고 한다.

이 곳이 고학인 추 대표는 집안 아저씨의 권

며 형태는 잔디 봉안형으로 안장수는 16~32기다. 설치면적은 약 30평으로 상석1, 비석1, 석등1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밖에도 봉안(납골)묘 원형·사각 봉안(납골)묘·사각묘·원형묘·가족 묘원·가족 원형묘·신도비·관음 수반 등 다양한 종류의 봉안 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고객들에게 배려하고 있다.

현재 권들석재는 비록 작은 업체지만 알뜰한 같은 경영과 추 대표의 27년 동안의 풍부한 노하우가 함께 하고 있어 향후 미래는 밝아 보이는 기만 한다.

문의 전화 031)534-4869, HP 011)387-4869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지 공 지 영 자 포천 지 지 지리 김

재테크 11

신입사원을 위한 재테크 원칙

대학을 졸업하고서도 취직을 못해 2, 3년씩 취업준비를 하는 일이 다반사가 되었다. 재 발발이 못하는 자식을 보는 부모님들의 한숨도 여기저기서 나오는 지경이니 참으로 답답하다.

이런 와중에 뜻밖한 신입사원 남새가 풀풀 나는 청년 하나를 만났다. 이제 세 번째 월급을 탔는데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무척이나 궁리를 한 듯했다. 너무 많은 정보 속에서 자신에게 정말 이로운 것은 무엇인지 고르기가 어렵다면 이미 선택한 것들은 제대로 한 것인지 진지하게 질문을 했다. 사실 금융에 대해서 이전에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스스로 알아서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다.

처음에 어떤 그림을 갖고 재무 계획을 세웠느냐에 따라 5년, 10년 더 나아가 노후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전

문가와 함께 세심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사회 초년생에게 필요한 재테크 원칙을 살펴본다.

1. 지출의 통제
대부분의 신입사원들은 쉽게 돈을 쓴다. 전에는 부모님께 타 쓰는 용돈이라 배똥했는데 자기 가 모든 전권을 쥔 돈이 생기고 다음 달에도 월급이 나온다는 생각으로 방만하게 사용한다. 잦은 친구들의 모임 등에 유희비로 쓰는 돈이 한 달 월급에 육박하는 경우도 흔하게 벌어진다. 하지만 이 시기만큼 돈을 절약하기 쉬운 때는 없다. 한 두 달 정도 자신의 지출내용을 파악한 후 불필요하게 나가는 돈을 줄여야 한다.

2. 보장성 보험의 준비
나이가 적은 만큼 보험료도 상대적으로 싸게 큰 보장의 보험을 준비할 수 있다. 종신보험과 건강보험을 준비하도록 한다. 큰 질병

에 대해 크게 보장받을 수 있고 보장기간도 충분히 길게 설계하여야 중도에 해약해서 손해 보는 일이 없다.

3. 목적자금 마련을 위한 투자
대개 3, 4년 후에 결혼을 하게 되는 만큼 주택마련이나 결혼자금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저금리 시대라 적금이 나 예금은 목적자금을 마련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적립식 펀드 가입으로 자산을 키워 나가야 한다. 이때 국내와 해외, 대기업 중심의 우량주와 중소기업 가치주 중심의 펀드에 적절히 분산하여 위험을 줄이고 수익을 늘릴 수 있도록 한다.

4. 장기금융상품의 활용
적어도 20% 정도는 10년 이상의 장기금융상품에 가입하여 복리의 마술을 누리도록 한다. 시간만큼 돈을 많이 벌어주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변액유니버설보험이나 변액연금보험이 적절하게 중도인출 기능을 통해 목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활용하면 가장 효과적이다.

그밖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할 통장으로는 주택청약저축, 월급통장으로는 하루를 맡겨도 이자가 붙는 CMA 통장, 소득공제와 7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도 좋은 금융 상품이다.

월급만으로는 살기 힘든 세상이다. 젊어서부터 내 자신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키워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무료상담
한경희 컨설턴트
011-9030-7917

하

부모와 자 각각 주택을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서 농촌과 도시에 따로 살고 있으나 건강보험 등의 문제로 부모의 주민등록을 자의 주소로 겨 놓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주택을 지 않으면 별 문제가 없으나, 부모 또는 자의 집 중 어느 하나를 게 되면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1. 1세대 여부 판정 :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 함은 동일한 생활공간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따라서 주민등록상으로는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하더라도 사실상 따로 거주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면 동일 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는 남세자가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부하여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2. 양도소득세 과세 : 세무서에서는 부동

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난 자료를 수집하여 전산처리 후 이에 의하여 과세대상 자료를 분류하는데, 위와 같이 양도일 현재 부모와 자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부모와 자의 집 중 어느 하나를 게 되면 1세대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세무서에서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 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고지하게 된다. 일단 고지서가 발부되면 공식적인 불복절차를 거쳐 생계를 같이 하지 않 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따로 거주하였다고 입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3. 대책 :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양도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시점에서 사실상은 별도세대였다는 것을 입증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그러 로 부모 또는 자의 주택 중 어느 하나를 양도할 계획이라면 양도하기 전에 주민등록을 분리해 놓는 것이 좋다. 그러면 별도세대 입증 등 복 한 문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료제공 정 031-870-45

수

재
2007년1월0일 20시경 경상남도 소재 수배전 설비 제조작업장에서 조립 작업자인 재 자가 조립후 전 인가시험 중 수배전 설비(AC, 기중차단기) 내부에 설치된 충전 부스비에 재 자 양손이 축,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재 원 인
가. 활선작업 안전수칙 작성 및 안전 교육 미실시 : 전 을 인가하여 작업 및 근 작업 수행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활선작업 요령 등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 미실시.
나. 활선작업시 출입금지 조치 미실시 : 활선상태에서 시험작업을 할 경우 출입금지 조치 및 시험 중임을 알리는 경고표지 등을 설치하여야 하나 미실시.
다. 활선작업용 보호구 미 용 : 재 의 전 을 인가하여 작동시험을 하는 수배전 A C 부근에서 근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절연용 보호구 등의 활선작업용 보호구를 지급, 용 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여 야 하나 보호구 등 미 용



재 대
가. 활선작업 안전수칙 작성 및 안전 교육 실시 : 활선작업 및 활선 근 작업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활선작업요령을 작성하고 관계 근로자에게 교육토록 지시.
나. 활선작업시 출입금지 조치 : 활선상태에서 전 시험을 할 경우 출입금지 조치 및 시험 중임을 알리는 경고표지 등의 안전조치
다. 활선작업용 보호구 용 : 재 의 충전전력에서의 활선작업 또는 근 작업 시 절연도, 절연화, 절연 장 등 안전용 보호구를 용 한 상태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

자료제공 국 공 단
기 지 031-86-601

국민연금 Q&A

■ 앞으로 투병 중인데 장애연금 받을 수 있나?

암 진단 후 장애 발생하면 수급대상 초진일부터 2년 지나야 장애등급 심사

암 진단을 받고 최종적으로 장애가 발생한다면 장애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장애연금은 1~4등급으로 나뉘는데, 평소 낸 국민연금의 액수에 따라 등급이 결정된다. 따라서 3년째 투병하고 있는 환자가 암이 가입 중에 발생했고 초진일로부터 3년이 지나 장애연금지급 청구를 한 경우 초진일로부터 2년 경과일 기준으로 장애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2년경과 후에도 경제활동이 가능해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이 후 장애 연금의 지급대상으로 인정되면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장애 연금을 받는 도중에 상태가 악화되면 심사 후 장애등급을 변경할 수도 있다. 반대로 암으로 인한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병세가 호전되

면 수급권을 상실할 수 있다. 만약 2년이 경과하기 전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장애연금은 가입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2년이 경과해도 완치되지 못한 경우에 초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한다. 등급이 인정되는 경우 그 2년이 지난 날부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등급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장애가 악화, 등급에 해당하게 되면 60세 이전에 지급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해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관리공단
포천지사 031-544-8700